2025학년도 수능대비 수능특강 2부 고전 시가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목차

[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1] 찬기파랑가 (충담사): 1P
반월 (이양연): 1P
[02] 사모곡 (작자 미상): 3P
오관산 (문충): 3P
오륜가 (작자 미상): 3P
[03] 구름이 무심탄 말이~ (이존오): 5P
말 없는 청산이오~ (성혼): 5P
대천 바다 한가운데~ (작자 미상): 5P
[04] 마음이 어린 후이니~ (서경덕): 7P
연 심어 실을 뽑아~ (김영): 7P
마음이 지척이면~ (작자 미상): 7P
가슴에 구멍을 둥시렇게 뚫고~ (작자 미상): 7P
[05] 단가육장 (이신의): 9P
[06] 우활가 (정훈): 11P
[07] 봉산곡 (채득기): 13P
[08] 농가월령가 (정학유): 15P
[09] 시집살이 노래 (작자 미상): 17P
우부가 (작자 미상): 17P
[10] 제비가 (작자 미상): 21P
[11] 기녀반 (허난설헌): 21P
앞 못에 든 고기들아~ (작자 미상): 21P
밭매는 소리 (작자 미상): 21P

[수특 46p, 해설 9p]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의 모습이올시 수풀이여.
일오내 자갈 벌에서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갓을 좇고 있노라.
아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 충담사, 「찬기파랑가」 -

(나)

옥거울 갈고 다듬어 **벽공***에 걸었더니
밝은 빛 **화장**할 때 비춰 보기 딱 알맞네
복비와 직녀가 서로 갖겠다 다투다가
㉠ 반쪽은 구름 사이에 반쪽은 물속에.

- 이양연, 「반월」 -

* 벽공(碧空): 푸른 하늘. 여기서는 '푸른 밤하늘'을 이름.

[24001-0028]

1. '달'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와 (나)의 '달'은 작품의 도입 부분에서 화자가 주목하는 시적 대상에 해당한다.
② (가)와 (나)의 '달'은 대상을 비추는 존재로 대상과 주위를 밝게 만드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③ (가)와 (나)의 도입 부분에서 '달'을 올려다보던 화자의 시선은 이후 아래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달'의 모습이나 형태가 달라지는 상황과 관련지어 '달'의 심미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⑤ (나)는 (가)와 달리 작품의 도입부터 마무리 부분까지 '달'과 관련된 행위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4001-0029]

2.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복비(宓妃)'는 복희씨의 딸로 황하 수신(水神) 하백의 처이다. 낙수에 빠져 죽어 수신이 되었다고 한다. '직녀'는 하느님의 손녀로 견우와 떨어져 은하수 서쪽 하늘에 산다. 일 년에 한 번 칠석날, 오작교를 건너 견우를 만난다고 한다.

① 구름 사이에 떠 있는 반달을 통해 견우에 대한 직녀의 사랑을, 물속에 들어 있는 반달을 통해 하백에 대한 복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군.
② 복비와 직녀가 옥거울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상상한 후, 보름달의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는 아쉬움을 쪼개진 거울의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군.
③ 구름 사이에 반달이 있고 물속에 반달이 있는 상황을, 하늘에 사는 직녀와 수신이 된 복비가 서로 갖겠다고 다툰 결과인 것처럼 그려 내고 있군.
④ 하늘에 뜬 달의 반쪽과 물속에 들어 있는 달의 반쪽이 서로 합쳐져 완전한 보름달이 되는 합일의 상황을 오작교에서의 만남을 통해 드러내고 있군.
⑤ 반달이 구름 사이에 숨어 있고, 물에도 거의 비치지 않아 자연을 완상하기 어려운 상황과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복비와 직녀의 상실감을 활용하여 형상화하고 있군.

[24001-0030]

3. <보기>와 관련지어 (가), (나)를 감상한다고 할 때, 독자의 감상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비유와 상징은 보조 관념을 활용하여 어떠한 사물, 사상, 개념 따위의 속성이나 특징을 드러내는 표현 방식이다. 비유는 보조 관념과 원관념이 모두 표면에 나타나지만, 상징은 원관념 없이 보조 관념만 표면에 나타나는 형태이다. 상징은 하나의 보조 관념이 하나 이상의 의미와 연결되어 다양한 의미를 함축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비유와 다르다. 또한 상징은 비유와 달리 보조 관념과 원관념 사이에 뚜렷한 공통점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 상징은 주어진 맥락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① (가)의 독자가 '흰 구름'을 두고 '맑고 깨끗함', '욕심 없음', '유유자적함', '허망함' 등을 떠올렸다면, '흰 구름'이라는 보조 관념에 연결할 수 있는 함축적 의미를 다양하게 떠올려 본 것이군.

② (가)의 독자가 '잣나무 가지'의 속성을 '높이 솟은 고귀한 것'으로 이해하고 '기랑'의 속성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면, '잣나무 가지'는 보조 관념으로 '기랑'은 원관념으로 인식한 것이군.

③ (가)의 독자가 '고깔'이라는 시어를 두고, '고깔'이 무엇인지 몰라도 주어진 맥락 안에서 '기랑의 드높은 절개와 지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고깔'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군.

④ (나)의 독자가 '옥거울'과 '벽공'이라는 표현을 보고, 하늘에 뜬 둥근달을 빗댄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보조 관념 '옥거울'과 원관념 '달' 사이에 '둥그렇다'라는 공통적 속성이 있다고 인식한 것이군.

⑤ (나)의 독자가 '화장'이라는 행위에 담긴 속성이 '갈고 다듬는 행위와 유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화장'이라는 보조 관념을 통해 '옥거울'의 특징을 드러낸 비유적 표현으로 인식한 것이군.

[수특 49p, 해설 11p]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호미도 날이지마는
낫같이 들 리도 없습니다
아버님도 어버이시지마는
위 덩더둥셩
㉡ 어머님같이 괴실 이 없어라
아소 님이시여 어머님같이 괴실 이 없어라

- 작자 미상, 「사모곡」 -

(나)

나뭇조각으로 작은 당닭 만들어
집게로 집어 벽의 홰에 앉혔네
㉢ 이 닭이 꼬끼오 울며 시간을 알릴 제야
㉣ 어머님 얼굴 비로소 지는 해와 같으리

- 문충, 「오관산」 -

(다)

아버지는 하늘이요 어머니는 땅으로서 나를 낳으시느라 애쓰셨도다
젖으로 기르시고 의리로 가르치셨으니 큰 은혜 갚으려네
대밭에서 눈물 흘리니 죽순이 나고, 얼음을 두드리니 고기가 튀어 올라* 지극한 정성 귀신을 감동시켰으니
㉤ 아아, 늙은 부모 봉양하는 광경 그 어떠합니까?
[엽(葉)*] 증삼 민자* 두 선생의 증삼 민자 두 선생의
아아, 혼정신성* 하는 광경 그 어떠합니까?

<제2장>

- 작자 미상, 「오륜가」 -

* 대밭에서 ~ 튀어 올라: 중국의 효자인 맹종과 왕상의 옛일에서 비롯한 말. 죽순을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맹종이 겨울에 죽순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여 슬퍼하니 눈 속에서 죽순이 돋아났으며, 겨울에 잉어를 드시고 싶어 하는 어머니를 위해 왕상이 언 강으로 가니 얼음이 절로 갈라지면서 잉어가 튀어 올랐다고 함.
* 엽: 옛 향악곡의 한 악절을 가리키는 국악 용어로, 본곡의 뒤에 따로 추가된 악절을 뜻함.
* 증삼 민자: 증삼과 민자는 공자의 제자로서 효행으로 유명함.
* 혼정신성: 자식이 밤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이른 아침에는 부모의 밤새 안부를 물음.

[24001-0031]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변해 가는 것에 대한 슬픔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② 인물의 도덕적 실천 사례를 제시하여 대상에 대한 송축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유사한 성격의 소재를 대등하게 나열하여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자연물이나 사물을 비유적 소재로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⑤ 사회의 질서가 조화롭게 갖춰진 세계를 묘사하여 이상향에 대한 염원을 나타내고 있다.

[24001-0032]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사물의 구체적 속성을 제시하여 추상적 대상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 ㉠에 담긴 화자의 생각을 직설적 표현을 사용해 부각하고 있다.
③ ㉢: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 ㉢과 연결되어 대상 인물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⑤ ㉤: 자신이 실천한 일에 대한 화자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24001-0033]

3. <보기 1>을 참고하여 (다)와 <보기 2>를 비교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1>

경기체가 「오륜가」와 '오륜가' 계열의 연시조는 모두 유학에서 가르치는 인간의 도리를 제재로 다루고 있지만, 창작 시기와 갈래가 서로 다른 데서 비롯한 일정한 차이가 둘 사이에서 발견된다. 경기체가 「오륜가」는 조선 초기의 진취적 분위기 속에서 창작된 작품답게 바람직한 가치가 실현된 세계를 장면화하여 보여 주고, 그것을 확인함으로써 생겨나는 고양된 감정과 그러한 세계의 실현에 대한 염원을 드러낸다. 반면, '오륜가' 계열의 연시조는 성리학이 융성하기 시작한 조선 중기에 창작되어, 교화의 수단으로써 오륜을 강조하며 당위적 가치에 대한 권고 내지 촉구의 태도가 두드러진다. '오륜가' 계열 연시조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작품에 주세붕의 「오륜가」와 김상용의 「오륜가」가 있다.

<보 기 2>

어버이 자식 사이 하늘 삼긴 지친(至親)이라
부모곧 아니면 이 몸이 있을쏘냐
오조(烏鳥)도 반포(反哺)를 하니* 부모 효도하여라
<제1수>
- 김상용, 「오륜가」 -

* 오조도 반포를 하니: '오조'는 까마귀임. '반포'는 까마귀 새끼가 다 자란 뒤에 늙은 어미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줌을 뜻하는 말로, 부모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일컬음. '반포지효'라고도 함.

① (다)와 <보기 2>는 창작 시기와 갈래가 서로 다르지만, 둘 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하늘이 정한 것임을 언급하고 있군.
② (다)와 <보기 2>는 모두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한 유학의 가르침을 제시하기 위해 자식을 낳은 부모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군.
③ (다)는 의문형 표현을 통해 고양된 감정을, <보기 2>는 의문형 표현을 통해 교화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군.
④ (다)는 부모의 은혜를 갚으려는 염원을 나타내고, <보기 2>는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권고하고 있군.
⑤ (다)는 지향하는 가치가 실현된 장면을 제시하고, <보기 2>는 자연물을 근거로 삼아 지향하는 가치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군.

[수특 52p, 해설 12p]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중천에 떠 있어 임의로 다니면서
구태여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덮느냐

- 이존오 -

(나)

말 없는 **청산**이오 태(態) 없는 **유수**로다
값 없는 청풍이오 임자 없는 명월이라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없이 늙으리라

- 성혼 -

(다)

대천 바다 한가운데 중침 세침* 빠지거다
여남은 사공 놈이 끝 무딘 상앗대를 끝끝이 둘러메어 일시에 소리치고 **귀*** **꿰어 내단 말**이 이셔이다 임아 임아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임이 짐작하소서

- 작자 미상 -

* 중침 세침 : 중치 바늘과 작은 바늘.
* 귀 : 바늘귀.

[24001-0034]

1.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색채 이미지를 대비하여 대상의 긍정적인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② 자연물의 일반적인 특징을 부각하여 그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의 행동이 우호적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④ 의문의 방식을 사용하여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대상이 이동하는 모습을 제시하여 화자의 심경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24001-0035]

2. (다)의 화자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천 바다 한가운데'를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 발생의 근원지로 간주한다.
② 바다에 빠진 '중침 세침'을 손쉽게 건져 내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강구한다.
③ '여남은 사공'들이 동시에 협력해야 목표를 이루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믿는다.
④ '끝 무딘 상앗대'를 사용함으로써 난관을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⑤ '임'에 대해서는 화자 자신을 믿어 주기를 바라는 심정을 하소연할 대상으로 여긴다.

[24001-0036]

3.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말'을 소재로 다룬 시조에서 세속의 언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자연의 침묵을 미덕으로 삼는 것에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삶의 공간인 세속과 그 언어가 지니는 허위성에 대한 반감이 담겨 있다. 이러한 경우 자연은 현실의 반대 항에 자리하며, 자연의 침묵이 선망의 대상이 된 것은 말로써 시비를 따지는 일로부터 초월하고 싶은 인간적 욕망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이때의 자연은 단순히 경물이 아니라, 인간과 분리되지 않은 채 인간이 일체감을 느끼는 대상이자 인간이 추구하는 도덕적 표상으로서의 자연이라 할 수 있다.

① (가)의 '구름이 무심탄' 사람들의 말에서 화자는 세속의 언어가 지니는 허위성을 발견하고 있군.
② (나)의 '청산'은 침묵의 미덕을 지닌 것으로 그려져 화자가 추구하는 도덕적 표상이라고 할 수 있군.
③ (나)의 '유수'는 화자와 분리되지 않은 채 '이 중'에 포함되어 현실의 반대 항에 자리한다고 볼 수 있군.
④ (다)의 '귀 꿰어 내단 말'에는 세속의 언어에서 초월하고 싶은 화자의 인간적 욕망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군.
⑤ (다)의 '온 말'은 인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세속의 언어로, 이에 대해 화자는 시비를 따져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마음이 어린 후이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운산(萬重雲山)에 어느 님 오리마는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

- 서경덕 -

(나)

연(蓮) 심어 실을 뽑아 긴 **노끈** 비비어 걸었다가
사랑이 그쳐갈 제 찬찬 **감아** 매오리다
우리는 **마음**으로 맺었으니 그칠 줄이 있으랴

- 김영 -

(다)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라도 지척이오
마음이 천리오면 지척도 천리로다
우리는 각재(各在) 천리오나 지척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

(라)

가슴에 **구멍을 둥시렇게** 뚫고 왼새끼*를 눈 길게 너슷너슷* 꼬아
그 구멍에 그 **새끼줄** 넣고 **두 놈**이 두 끝 마주 잡아 이리로 훌근 저리로 훌적 **훌근훌근 할 적**에는 나나 남이나 다 그는 **아무쪼록** 견디려니와
아마도 임 여의고 살라면 그는 **그리 못하리라**

- 작자 미상 -

* 왼새끼 : 왼쪽으로 꼰 새끼.
* 너슷너슷 : 느슨하게.

[24001-0037]

1. (가)~(라)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공간의 특성과 연관 지어 화자의 생각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있다.
② (가)와 (라)는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나)와 (다)는 대비되는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여 과거와 달라진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도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와 (라)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행동을 제시한 후, 부정적 상황에 대처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⑤ (다)와 (라)는 대상이 유발할 수도 있는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 화자의 변함없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24001-0038]

2. (라)와 <보기>의 [A]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 (라)는 「청구영언」에 수록되어 있는 사설시조로, 사랑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임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의 내용과 유사한 노래가 「대은선생실기(大隱先生實記)」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은'은 고려 시대의 무신인 변안열의 호로, 변안열은 고려에 대한 충절을 끝까지 지킨 무신이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당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 건국을 계획하고 있던 이성계는 자신의 생일에 변안열을 비롯한 고려의 신하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날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고려의 신하들을 회유하기 위한 노래를 부르자 변안열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며 고려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럼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라)와 고려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을 노래한 변안열의 노래를 비교하여 감상해 봅시다.

내 가슴에 말[斗]만 한 **구멍** 뚫고
길고 긴 새끼줄 꿰어
앞뒤로 끌고 당겨 갈고 쓸지라도 [A]
네가 하는 대로 내 **마다치 않겠으나**
내 임 빼앗고자 한다면
이런 일엔 내 **굽히지 않으리라**

① (라)의 '구멍'은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 흔들리는 상황을, [A]의 '구멍'은 고려에 대한 화자의 충절이 약해지는 상황을 의미하겠군.
② (라)의 '두 놈'과 [A]의 '네'는 각각 임에 대한 사랑과 고려에 대한 충절을 보여 주기 위해 화자가 설정한 인물로 볼 수 있겠군.
③ (라)의 '훌근훌적 할 적'과 [A]의 '앞뒤로 끌고 당'기는 것은 모두 화자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겪어야 할 시련의 수준을 나타내겠군.
④ (라)의 '아무쪼록'에서는 임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A]의 '마다치 않겠으나'에서는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시련도 견딜 수 있다는 화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겠군.
⑤ (라)의 '그리 못하리라'는 임과 헤어질 수 없다는 화자의 의지를, [A]의 '굽히지 않으리라'는 상대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화자의 충절을 나타내겠군.

[24001-0039]

3. <보기>를 참고하여 (가)~(라)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고전 시가에서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형상화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구체적인 시적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창의적 발상을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 대상으로 형상화하거나 변형하기 어려운 대상을 변형이 가능한 대상으로 형상화하는 방법도 자주 사용된다. (가)~(라)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사람의 심리와 관련된 추상적 개념인 '마음'이나 '사랑', 신체의 일부인 '가슴'을 형상화하며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① (가)에서는 '지는 잎 부는 바람'을 '그'라고 착각한 시적 상황을 제시하며 자신의 '마음'을 어리석다고 여기는 화자의 자책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는 '사랑'을 '노끈'으로 '감아' 맬 수 있다는 발상을 통해 '사랑'을 자신의 노력으로 지속시킬 수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나)는 '마음'이 맺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한다는 발상을 통해 화자와 임의 '마음'이 지닌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다.

④ (다)는 '지척'과 '천리'라는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와 임의 '마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라)는 '구멍을 둥시렇게 뚫'은 후 '새끼줄'을 넣을 수 있다는 발상을 통해 변형이 어려운 화자의 '가슴'을 변형이 가능한 대상으로 형상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수특 57p, 해설 15p]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장부의 하올 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효제충신(孝悌忠信)밖에 하올 일이 또 있는가
어즈버 인도(人道)에 하올 일이 다만 인가 하노라

<제1장>

남산에 많던 솔이 어디로 갔단 말고
난(亂) 후 부근(斧斤)*이 그다지도 날랠시고
두어라 **우로(雨露)*** 곧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제2장>

창밖에 세우(細雨) 오고 뜰 가에 ⓐ 제비 나니
적객*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저 제비 비비(飛飛)*를 보고 **한숨 겨워하**나니

<제3장>

적객에게 벗이 없어 공량(空樑)*의 ⓑ 제비로다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지고
어즈버 내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

<제4장>

인간(人間)에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천리를 멀다 아녀 간 데마다 따라오니
어즈버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넨가 하노라

<제5장>

설월(雪月)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섞인 꽃 여윈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어즈버 **호접(胡蝶)**이 이 향기 알면 애 끊일까 하노라

<제6장>

- 이신의, 「단가육장」 -

* 부근 : 큰 도끼와 작은 도끼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우로 : 비와 이슬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적객 : 귀양살이하는 사람.
* 비비 : 날아다니는 모습을 의미하는 의태어.
* 공량 : 건축물의 공간에 얹는 보.

[24001-0040]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제1장>은 물음의 방식을 통해 기존의 통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② <제2장>은 상징적 자연물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③ <제3장>은 <제4장>과는 달리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함을 강조하고 있다.
④ <제4장>은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제6장>은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물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⑤ <제5장>은 <제6장>과는 달리 행동 묘사를 통해 자연물과 교감하고자 하는 화자의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4001-0041]

2.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와 ⓑ는 모두 다가올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이끌어내는 대상이다.
② ⓐ와 ⓑ는 모두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내면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대상이다.
③ ⓐ는 화자의 입장에 공감하는 대상이고, ⓑ는 화자의 정서를 자극하는 대상이다.
④ ⓐ는 화자의 시름을 깊게 만드는 대상이고, ⓑ는 화자가 시름을 풀어내는 대상이다.
⑤ ⓐ는 화자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대상이고, ⓑ는 화자와 대비되는 상황에 놓인 대상이다.

[24001-0042]

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단가육장」은 귀양살이를 하는 작가의 삶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귀양지에서의 답답함과 외로움 등 복잡한 심경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이신의는 정치적 격변기를 살아가면서 임진왜란 당시에는 의병 활동에 앞장섰으며, 전란 이후에는 목민관으로서 덕망을 떨치기도 하였다. 이 작품은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가 영창 대군의 어머니인 인목 대비를 유폐하자는 의론을 제기하자 강직한 태도로 이에 반대하는 글을 올려 유배를 간 귀양지에서 창작한 작품으로 추정된다.

① 인간의 도리를 '효제충신'이라고 한 것에서 인목 대비를 유폐하자는 의견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의병 활동과 목민관 등 나라를 위한 일에 책임을 다했던 작가의 삶의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② '난 후 부근'으로 인해 사라진 '솔'을 '우로'가 깊으면 다시 볼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임진왜란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③ 적객의 '회포'가 '끝이 없어' '한숨 겨워하'는 화자의 모습은 귀양살이를 하는 작가의 삶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④ 귀양지에서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을 '천리'로 나타내고, 먼 곳까지 따라오는 대상이 '명월'밖에 없는 상황은 귀양지에서의 외로운 작가의 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⑤ '호접'의 애가 끊어질 정도로 창밖 '매화'의 '향기'가 짙다는 것은 작가의 강직한 태도가 상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수특 60p, 해설 16p]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찌 생긴 몸이 이토록 우활*한가
우활도 우활할샤 그토록 우활할샤
이봐 ⓐ 벗님네야 우활한 말 들어 보소
이내 젊었을 때 우활함이 그지없어
이 몸 생겨남이 금수와 다르므로
㉠ 애친경형* 충군제장* 내 분수로 여겼더니
㉡ 하나도 못 이루고 세월이 늦어지니
평생 우활은 날 따라 길어 간다 [A]
아침이 부족한들 저녁을 근심하며
한 칸 초가집이 비 새는 줄 알았던가
현순백결(懸鶉百結)*이 부끄러움 어이 알며
어리석고 미친 말이 미움받을 줄 알았던가
우활도 우활할샤 그토록 우활할샤
봄 산의 꽃을 보고 돌아올 줄 어이 알며
여름 정자에 잠을 들어 꿈 깰 줄 어이 알며
가을 하늘에 달 맞아 밤드는 줄 어이 알며
㉢ 겨울 눈에 시흥(詩興) 겨워 추움을 어이 알리 [B]
사시가경에 어찌할 줄 모르도다
㉣ 말로(末路)에 버린 몸이 무슨 일을 염려할까
세속의 시비 듣도 보도 못하거든
이 몸의 처지에 백년을 근심할까
우활할샤 우활할샤 그토록 우활할샤
아침에 누웠고 낮에도 그러하니
하늘이 준 우활을 내 설마 어이하리
그래도 애달프다 고쳐 앉아 생각하니
이 몸이 늦게 태어나 애달픈 일 많고 많다
일백 번 다시 죽어 옛사람 되고 싶네
태평성대에 잠깐이나 놀아 보면 [C]
요순* 일월(日月)을 잠시나마 쬘 것을
순박한 풍속이 경박하게 되었도다
번잡한 정회(情懷)를 누구에게 이르려는가
태산에 올라가 온 세상이나 다 바라보고 싶네
성현 살던 세상 두루 살펴 **학업 닦던 자취 보고 싶**네
주공(周公)*은 어디 가고 꿈에도 뵈지 않는가
매우 심한 나의 삶을 슬퍼한들 어이하리
만리에 눈뜨고 태고에 뜻을 두니
우활한 마음이 가고 아니 오는구나
세상에 혼자 깨어 누구에게 말을 할까
㉤ 축타*의 말솜씨를 이제 배워 어이하며
송조*의 미모를 얽은 낯에 잘할는가
산에 나는 풀과 열매* 어디서 얻어먹으려뇨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함이 다 우활의 탓이로다
이리 헤아리고 저리 헤아리고 다시 헤아리니
평생의 모든 일이 우활 아닌 일 없도다
이 우활 거느리고 백년을 어이하리
ⓑ 아이야 잔 가득 부어라 취하여 내 우활 잊자

- 정훈, 「우활가」 -

* 우활: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잘 모름.
* 애친경형: 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함.
* 충군제장: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른에게 공손함.
* 현순백결: 옷이 헤어져 백 군데나 기웠다는 뜻.
* 요순: 요순시대를 이름.
* 주공: 주나라 문왕의 아들이자 무왕의 동생. 주나라 건국 초기에 큰 공을 세운 충신.
* 축타: 위나라의 대부로서 종묘 제사를 관장하는 벼슬을 지낸 사람. 교묘한 말솜씨로 유명함.
* 송조: 송나라의 공자. 엄청난 미남으로 알려짐.
* 산에 나는 풀과 열매: 원문은 '우첨산초실'임. 우첨산초(右詹山草)는 옥황상제의 딸이 변한 것으로, 이 열매를 먹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함.

[24001-0043]

1.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에서 화자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과 관련하여, 자신의 우활함을 드러내고 있다.
② [B]에서 화자는 각 계절의 아름다움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자신의 우활함을 드러내고 있다.
③ [C]에서 화자는 자신의 염원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자신의 우활함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체념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④ [A]~[C]에서 화자는 다양한 상황과 관련지어, 자신의 우활함이 매우 심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A]~[C]에서 화자는 평생토록 자신을 괴롭혀 온 일들과 관련지어, 자신의 우활함이 '하늘이 준' 운명임을 드러내고 있다.

[24001-0044]

2. <보기>를 바탕으로 요순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요순시대'는 중국 상고 시대의 성군인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리던 시대를 통칭하는 말로, 이상적인 정치가 베풀어져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았던 태평성세를 뜻한다.

① 자신 또한 '요순' 일월을 쬘 수 있었다면, '이 몸이 늦게 태어나' 겪는 수많은 '애달픈 일'이 조금이나 줄었을 것이라 여기고 있다.
② 현재의 애달픔은 이번 생에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차라리 죽어서라도 '요순시대'와 같은 태평성대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③ '요순시대'의 순박했던 풍속이 경박하게 변하여 '번잡한 정회'를 털어놓을 데가 없게 된 오늘날의 상황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④ '요순시대'처럼 자신이 살펴보고 싶은 시대로 '성현 살던 세상'을 언급하면서, '학업 닦던 자취 보고 싶'다는 바람을 고백하고 있다.
⑤ '요순시대'를 회복하지 못한다고 해도 '만리에 눈뜨고 태고에 뜻을 두'면,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하던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24001-0045]

3.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 화자를 위로하는 대화의 상대방으로 설정되었다면, ⓑ는 화자의 숨겨진 욕망을 간청하기 위해 떠올린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② ⓐ가 화자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위한 청자로 설정되었다면, ⓑ는 삶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며 시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청자로 설정되었다.
③ ⓐ가 화자의 의사에 반하여 갈등을 심화시키는 인물로 설정되었다면, ⓑ는 화자의 속내를 살피며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화자를 만족시키는 인물로 설정되었다.
④ ⓐ가 우활하게 살아온 화자의 처지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웃으로 설정되었다면, ⓑ는 화자의 곁에서 화자의 시중을 들기 위해 이웃이 보낸 하인으로 설정되었다.
⑤ ⓐ가 화자가 부러워하는 인물로 화자의 삶을 대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설정되었다면, ⓑ는 화자에게 복종하던 인물로 화자의 결심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설정되었다.

[24001-0046]

4.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작품이 창작된 조선 중기, 제도권 중심부에 놓여 있던 사족(士族)들과 주변부에 놓여 있던 사족들은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위상에서 적잖은 차이가 있었다. 제도권 주변부에 놓여 있던 사족들의 경우, 벼슬이나 명성을 높여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낼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자연에 은거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자연에 대한 애착으로 치환하면서 유교적 이념이나 가치관을 고수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추후 벼슬길에 나갈 기회를 얻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버리지 않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① ㉠은 평소 유교적 이념이나 가치관을 추종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음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군.
② ㉡은 나이가 들어서도 문관으로서 성취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표현으로 볼 수 있군.
③ ㉢은 자연 속에 은거하며 지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자연에 대한 애착으로 치환하여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④ ㉣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고 사회적 위상도 높지 않은 불우한 처지를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군.
⑤ ㉤은 수양을 계속해도 벼슬길에 나가 이상을 실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군.

[수특 64p, 해설 18p]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노라 옥주봉아 있거라 경천대야
요양* **만릿길이 멀어야 얼마 멀**며
그곳에서의 일 년이 오래라고 하랴마는
상봉산 별천지를 처음에 들어올 때
노련의 분노* 탓에 속세를 아주 끊고
발 없는 구리솥 하나 전나귀에 싣고서
추풍 부는 돌길로 와룡강 찾아와서
천주봉 석굴 아래 초가 몇 칸 지어 두고
고슬단 행화방에 정자 터를 손수 닦아
낮에야 일어나고 새 달이 돋아 올 때
지도리 없는 거적문과 울 없는 가시사립
적막한 산골에 손수 일군 마을이 더욱 좋다
생애는 내 분수라 담박한들 어찌하리
밝은 세상 한 귀퉁이에 버린 백성 되어서
솔과 국화 쓰다듬고 잔나비와 학을 벗하니
어와 이 강산이 경치도 좋고 좋다
높다란 금빛 절벽 허공에 솟아올라
구암을 앞에 두고 경호 위에 선 모양은
삼신산 제일봉이 여섯 자라 머리*에 벌인 듯
붉은 놀, 흰 구름에 곳곳이 그늘이요
유리 같은 온갖 경치 빈 땅에 깔렸으니
용문(龍門)을 옆에 두고 펼쳐진 모래밭은 [A]
여덟 폭 돌병풍을 옥난간에 두른 듯
맑은 모래 흰 돌이 굽이굽이 경치로다
그중에 좋은 것이 무엇이 더 나은가
구암이 물을 굽혀 천백 척 솟아올라
구름 위로 우뚝 솟아 하늘을 괴었으니
어와, 경천대야, 네 이름이 과연 헛된 것 아니로다

(중략)

시비 영욕 다 버리고 갈매기와 늙자더니
무슨 재주 있다고 나라에서 아시고
쓸데없는 이 한 몸을 찾으시니 망극하구나
상주 십이월에 심양* 가라 부르시니
어느 누구 일이라 잠시인들 머물겠는가
임금 은혜 감격하여 행장을 바삐 챙기니
삼 년 입은 옷가지로 이불과 요 겸하였네
남쪽의 더운 땅도 춥기가 이렇거든
한겨울 깊은 때에 우리 임 계신 데야
다시금 바라보고 우리 임 생각하니
이국(異國)의 겨울 달을 뉘 땅이라 바라보며 [B]
타국 풍상을 어이 그리 겪으신가
높은 언덕에 뻗은 칡이 삼 년이 되었구나*
굴욕이 이러한데 꿇은 무릎 언제 펼까
조선에 사람 없어 오랑캐 신하 되었으니
삼백 년 예악 문물 어디로 갔단 말고
오늘날 포로들이 다 옛날 관주빈이라*
태평 시절 막히고 찬란한 문물 사라지니
동해 물 어찌 퍼 올려 이 굴욕 씻을런가
오나라 궁궐에 섶을 쌓고 월나라 산에 쓸개 매다니*
임금이 굴욕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고금의 도리인데
하물며 우리 집이 대대로 은혜 입었으니
아무리 힘들다고 대의를 잊겠는가
어리석은 계략으로 거센 물결 막으려니
재주 없는 약한 몸이 기운 집을 어찌할까
방 안에서 눈물 내면 아녀자의 태도로다
이 원수 못 갚으면 무슨 얼굴 다시 들까
악비의 손에 침을 뱉고 조적의 노에 맹세하니*
내 몸의 생사야 깃털처럼 여기고
동서남북 만리 밖에 왕명 좇아 다니리라
㉡ 있거라 가노라 가노라 있거라
무정한 갈매기들은 맹세 기약 웃지마는
성은이 망극하니 갚고 다시 돌아오리라

- 채득기, 「봉산곡」 -

* 요양: 청나라 태조 누르하치가 도음으로 삼았던 곳. 훗날 요양에서 심양으로 천도함.
* 노련의 분노: 주나라를 버리고 진나라 왕을 천자로 부르려는 것에 대한 노련의 분노. 여기서는 명나라를 버리고 청나라를 섬기려는 것에 대한 분노를 말함.
* 여섯 자라 머리: 발해 동쪽 바다에 떠 있는 다섯 선산을 떠받치고 있다는 여섯 마리 큰 자라의 머리.
* 심양: 선양. 지금의 요령성 성도. 북경으로 천도하기 전까지 청나라가 도읍으로 삼은 곳.
* 높은 ~ 되었구나: 병자호란 때 조선이 청나라에 굴욕을 당한 지 삼 년이 되었음을 나타낸 구절임.
* 오늘날 ~ 관주빈이라: '관주빈'은 중국에 사신으로 간다는 말. '현재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간 사람들이 예전에는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사람들'이라는 뜻임.
* 오나라 ~ 매다니: 섶에 누워 자고 쓸개를 맛보면서 복수를 다짐한다는 '와신상담'을 가리킴. 중국 춘추 시대 오나라의 왕 부차가 원수를 갚기 위하여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며 복수할 것을 맹세하고, 월나라의 왕 구천이 쓸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한 데서 유래한 말임.
* 악비의 ~ 맹세하니: 악비와 조적의 고시를 인용하여 청나라에 당한 치욕을 씻으려는 작가의 의지를 표현한 구절임. 중국 송나라 고종 때의 충신인 악비는 손에 침을 뱉어 맹세하면서 금나라와의 강화를 반대했고, 중국 동진 원제 때 조적은 유민들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면서 중원을 회복할 것을 맹세했음.

[24001-0047]

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가 자연을 완상하는 즐거움에 주목하며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면, [B]는 왕명을 받은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A]가 경물들의 아름다움을 평가한 후 순위를 매겨 소개하고 있다면, [B]는 화자 자신이 맡게 된 일 중 시급한 일들을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③ [A]가 시선의 이동을 중심으로 공간적 배경이 지닌 다양한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면, [B]는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해당 공간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달라진 이유를 서술하고 있다.
④ [A]가 눈앞에 펼쳐진 경물에 주목하여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요소를 밝히고 있다면, [B]는 자연이 지겨워진 상황과 관련하여 자신이 나라의 부름에 응하게 된 까닭을 밝히고 있다.
⑤ [A]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포착하여 구체적 수치와 감각적 시어로 표현하고 있다면, [B]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에 은거했던 신하가 임금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4001-0048]

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 ㉡은 대구의 형식을 활용해 화자의 아쉬운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② ㉠과 ㉡을 통해 떠나야 하는 화자와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자연이 대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과 ㉡에는 떠나고 싶지 않은 화자에게 그대로 머물 것을 권하는 청자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④ ㉠은 ㉡과 달리 청자를 호명하는 방식을 활용해 화자가 관심을 둔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⑤ ㉠과 ㉡에는 동일한 시어가 활용되고 있지만 ㉡은 ㉠과 달리 시어의 제시 순서에 변화를 주고 있다.

[24001-0049]

3. <보기>와 관련하여 화자의 심리나 상황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병자호란은 1636년(인조 14) 청나라가 친명 정책을 유지하던 조선을 침입하여 일어난 전쟁을 말한다. 전쟁에 패배한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나라 태종에게 군신의 관계를 선언하는 굴욕적 예식을 치러야 했고, 청나라는 소현 세자, 봉림 대군과 척화파 등을 볼모로 붙잡아 갔다. 「봉산곡」은 작가인 채득기가 볼모로 잡혀간 세자와 대군을 모시러 청나라의 심양으로 떠나던 1638년에 지은 작품으로, 작품 속 화자의 상황은 작가의 실제 삶과 관련이 깊다.

① 화자는 왕명을 받아 청나라로 떠나는 자신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요양 만릿길'이 '멀어야 얼마 멀'겠냐 말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 있다.
② 화자는 조선이 병자호란에서 패배하고 청나라에 항복한 사건을 떠올리며, 그로 인해 자신이 '밝은 세상 한 귀퉁이에 버린 백성'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③ 화자는 삼전도에서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군신의 관계를 선언한 사건을 두고 '조선에 사람 없어 오랑캐 신하' 된 일이라 평가하고 있다.
④ 화자는 청나라에 볼모로 붙잡혀 간 소현 세자 등을 '한겨울 깊은 때에 우리 임'으로 제시하며, 그들이 심양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⑤ 화자는 굴욕적인 사건들을 그냥 지켜보아야 했던 과거의 상황을 아쉬워하며, '어리석은 계략으로 거센 물결 막'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수특 68p, 해설 19p]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십이월은 계동(季冬)이라 소한 대한 절기로다
설중(雪中)의 봉만(峯巒)들은 해 저문 빛이로다
세전에 남은 날이 얼마나 걸렸는고
집안의 여인들은 세시 의복 장만하고
무명 명주 끊어 내어 온갖 무색 들여 내니
자주 보라 송화색에 청화 갈매 옥색이다
일변으로 다듬으며 일변으로 지어 내니
상자에도 가득하고 횃대에도 걸었도다
입을 것 그만하고 음식 장만하오리라
떡쌀은 몇 말이며 술쌀은 몇 말인고
콩 갈아 두부하고 메밀쌀 만두 빚소
세육은 계를 믿고 북어는 장에 사서
납평 날 창애 묻어 잡은 꿩 몇 마리인고
아이들 그물 쳐서 참새도 지져 먹세
깨강정 콩강정에 곶감 대추 생률이라
주준에 술 들으니 돌 틈에 새암 소리
앞뒷집 타병성은 예도 나고 제도 나네
새 등장 새발심지 장등하여 새울 적에
윗방 봉당 부엌까지 곳곳이 명랑하다
초롱불 오락가락 묵은세배하는구나
어와 내 말 듣소 [농업]이 어떠한고
종년 근고한다 하나 그중에 낙이 있네
위로는 **국가 봉용** 사계로 제선 봉친
형제 **혼상 대사 먹고 입고 쓰는 것이**
토지 소출 아니라면 돈 지당을 어이할꼬
예로부터 이른 말이 **농업이 근본이라**
배 부려 선업하고 **말 부려 장사하기**
전당 잡고 빚 주기와 장판에 체계 놓기
술장사 떡장사며 술막질 가게 보기
아직은 흔전하나 한 번을 뒤뚝하면
파락호 빚꾸러기 살던 곳 터도 없다
농사는 믿는 것이 내 몸에 달렸느니
절기도 진퇴 있고 연사도 풍흉 있어
수한 풍박 잠시 재앙 없다야 하랴마는
극진히 힘을 들여 가솔이 일심하면
아무리 살년에도 아사를 면하느니
제 시골 제 지키어 소동(騷動)할 뜻 두지 마소
황천(皇天)이 인자하사 노하심도 일시로다
자네도 헤어 보아 십 년을 가량(假量)하면
칠분은 풍년이요 삼분은 흉년이라
천만 가지 생각 말고 농업을 전심하소
하소정(夏小正)* 빈풍시(豳風詩)*를 성인이 지었으니
이 뜻을 본받아서 대강을 기록하니
이 글을 자세히 보아 힘쓰기를 바라노라

- 정학유, 「농가월령가」 -

* 하소정 : 옛 중국의 기후 관련 저서로 농사와 목축 및 어업 활동에 대해 기록하였으며 「예기(禮記)」에 실려 있음.

* 빈풍시 : 주나라 주공이 백성들의 농사짓는 어려움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지은 시편으로 「시경(詩經)」에 실려 있음.

[24001-0050]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특정한 시기의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계절감을 조성하고 있다.
② 옷감 마련을 위해 일한 결과를 여러 가지 색상으로 나열하여 보여 주고 있다.
③ 다양한 음식 재료를 준비하는 방법과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마을 사람들이 풍속에 따라 의식을 이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을 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말을 주고받는 장면을 제시하여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24001-0051]

2. [농업]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노동을 고생스럽게 여기면서도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② 농사 중 자연재해를 겪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③ 하늘의 뜻이 인간에게 우호적이라 믿으면서 인간의 노력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④ 가족의 구성원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서 정성을 다하여 노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⑤ 농사 과정에서 한 번의 실수가 삶의 터전을 잃게 할 수도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4001-0052]

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농가월령가」에는 국가와 개인을 떠받치는 물적 토대가 농업에 있음을 강조하며 농사의 주체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려고 한 작가의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자본의 증식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증대되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도시로 농촌의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농촌 공동체가 불안정해지던 당시의 사회상과 관련이 깊다. 향촌 사회가 동요되면 향촌 사족들은 존재 기반을 상실하게 되므로 작가는 이 노래를 지어 지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사회 변화를 막기 위한 반동적 대응의 방편으로 삼은 것이다. 이 작품에서 성실한 노동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각종 유희를 행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세상을 그린 것은 향촌민들을 농업으로 유도하여 향촌 사회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① '국가 봉용'과 '혼상 대사 먹고 입고 쓰는 것이 / 토지 소출'에서 비롯된다고 노래한 것은 국가와 개인을 떠받치는 물적 토대가 농업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군.

② '제 시골 제 지키어 소동할 뜻 두지 마소'라는 말은 도시로 농촌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막아 보려 한 반동적 대응의 목소리라 할 수 있군.

③ '말 부려 장사하기 / 전당 잡고 빚 주기와 장판에 체계 놓기'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자본의 증식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증대된 사회적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군.

④ '자네도 헤어 보아 십 년을 가량하면 / 칠분은 풍년이요 삼분은 흉년이라'고 말한 것은 농사에 미숙한 향촌 사족들도 성실히 노동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지주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 할 수 있군.

⑤ '농업이 근본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천만 가지 생각 말고 농업을 전심하소'라고 요청하는 화자의 목소리에는 향촌민들을 농업으로 유도하여 향촌 사회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군.

[수특 71p, 해설 20p]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떱데까
이애 이애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밭에는 당초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고
고추 당초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둥글둥글 수박 식기 밥 담기도 어렵더라 [A]
도리도리 도리소반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오 리 물을 길어다가 십 리 방아 찧어다가
아홉 솥에 불을 때고 열두 방에 자리 걷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비니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세 하나 할림새*요 시누 하나 뾰족새요 [B]
시아지비 뾰중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나 하나만 썩는 샐세
㉡ 귀먹어서 삼 년이요 눈 어두워 삼 년이요
말 못 해서 삼 년이요 석삼년을 살고 나니
배꽃 같은 요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삼단 같은 요내 머리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
백옥 같은 요내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C]
열새 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네
두 폭 붙이 행주치마 콧물 받기 다 젖었네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 소(沼) 이루겠네
그것도 소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떠들어오네

-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

* 할림새 : 남의 허물을 잘 고해바치는 사람.
* 비사리춤 : 비를 엮는 싸리 묶음.

(나)

저 건너 꽁생원은 제 아비의 덕분으로
돈천이나 가졌더니 술 한잔 밥 한술을
친구 대접 하였던가
주제넘게 아는 체로 음양 술수 탐혼하야
당발복 구산하기* 피란곳 찾아가며
올 적 갈 적 행로상(行路上)에 처자식을 흩어 놓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면 끼니조차 잇지 못한다 [D]
남을 속여 재물을 차지하려 해도 두 번째는 아니 속고
공납범용(公納犯用)* 하자 하니 일갓집에 부자 없고
뜬재물 경영하고 경향(京鄕) 없이 쏘다니며
재상가에 청(請)질하다 봉변하고 물러서고
남의 골에 검태* 갔다 혼검에 쫓겨 와서
혼인 중매 혼자 들다 무렵 보고 뺨 맞으며
가대문서(家垈文書) 구문 먹기 핀잔먹고 자빠지기
불리 행세 찌그렁이 위조문서 비리호송
㉢ 부자나 후려 볼까 감언이설 꾀어 보세
엇막이며 보막이며* 은점(銀店)이며 금점(金店)이며
대로변에 색주가(色酒家)며 노름판에 푼돈 떼기
남북촌에 뚜장이로 인물 초인(招引) 하여 볼까
산진매 수진매에 사냥질로 놀러 갈 제
대종손(大宗孫) 양반 자랑 산소나 팔아 볼까
혼인 핑계 어린 딸은 백 냥짜리 되었구나
아낙은 친정살이 자식들은 고생살이
일가의 눈이 희고 친구의 손가락질
부지거처(不知去處) 나가더니 소문이나 들어 볼까
산 너머 꽁생원은 그야말로 하우(下愚)로다
㉣ 거들어서 한 말 자랑 대장부의 결기로다
동네 존장 몰라보고 이소능장(以少淩長)* 욕하기와
옷을 찢고 갓 부수며 사람 치고 맞았다고 떼쓰기와
남의 과부 겁탈하기 투장(偸葬)간 곳 떡 달라 청하기 [E]
친척 집의 소 끌기와 주먹다짐 일쑤로다
부잣집에 긴한 체로 친한 사람 이간질과
월숫돈 일숫돈 장변리(長邊利)* 장체계(場遞計)*며
제 부모에 몹쓸 행사
투전꾼은 좋아하며 손목 잡고 술 권하며
제 처자는 몰라보고 노리개로 정표 주며
자식 노릇 못하면서 제 자식은 귀히 알며
며느리는 들볶으며 봉양 잘못 호령한다
기둥 베고 벽 떠러라 천하 난봉 자칭하니
부끄럼을 모르고서 주리 틀려 경친 것을
옷을 벗고 자랑하며
술집이 안방이요 투전방이 사랑이라
늙은 부모 병든 처자 손톱 발톱 제쳐 가며
잠 못 자고 길쌈한 것 술 내기로 장기 두고
책망(責望) 없이 버린 몸이 무슨 생애 못하여서
누이 자식 조카자식 색주가로 환매하며
부모가 걱정하면 와락더라* 부르대며
아낙이 사설하면 밥상 치고 계집 치기
도망산에 뫼를 썼나* 저녁 굶고 또 나간다
㉤ 포청 귀신 되었는지 듣도 보도 못헐레라

- 작자 미상, 「우부가(愚夫歌)」 -

* 당발복 구산하기 : 복을 위하여 명당을 찾아다님. '당발복'은 '당대발복(當代發福)'의 오기로 추정됨.
* 공납범용 : 국고를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쓰는 것.
* 검태 : 걸태질. 염치나 체면을 돌보지 않고 재물을 긁어 들이는 짓.
* 엇막이며 보막이며 : 엇막이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막는 둑, 보막이는 보를 막기 위해 둑을 막거나 고치는 일.
* 이소능장 :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무례한 언행을 함.
* 장변리 : 돈이나 곡식 등을 꿔 주고 한 해에 본전의 절반을 이자로 받는 고리대금.
* 장체계 : 장에서 돈을 비싼 이자로 꿔 주고 장날마다 본전의 일부와 이자를 거두어들이는 일.
* 와락더라 : 모지락스럽고 악독하게.
* 도망산에 뫼를 썼나 : '역마살이 끼었나.'라는 뜻으로, '역마살'은 '늘 분주하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된 액운.'을 의미함.

[24001-0053]

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형님'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시집살이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 시간을 나타내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나'의 시집살이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부각하고 있다.
③ ㉢: '꽁생원'의 생각을 인용하는 방식을 통해 '꽁생원'의 행위에 담긴 의도를 제시하고 있다.
④ ㉣: 반어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꾕생원'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나타내고 있다.
⑤ ㉤: 비현실적 존재를 언급하며 '꾕생원'의 행실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4001-0054]

2. (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꽁생원과 꾕생원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말재주가 좋아 사람들을 속이면서 재산을 갈취한다.
② 아버지의 재산을 믿고 동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
③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동냥을 통해 자신의 끼니를 해결한다.
④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아부하며 신분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한다.
⑤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 없이 집 밖에 나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24001-0055]

3.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여러 가지 사물이나 행위, 사건 등을 낱낱이 죽 늘어놓는 방식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징을 강조하는 표현 기법을 '열거'라고 한다. 이러한 열거는 이질적인 대상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드러낼 때 활용되기도 하지만, 동질적으로 간주되던 사물이나 행위, 사건들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가)와 (나)는 이러한 열거의 방식을 활용하여 각각 시집살이의 어려움과 '꽁생원'과 '꾕생원'이라는 인물의 부정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① [A]에서 화자가 하는 농사일과 집안일은 모두 화자가 겪는 시집살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집 안과 집 밖에서 화자가 하는 이질적인 행위들 사이의 유사성을 드러내는 열거를 확인할 수 있다.
② [B]에서 화자가 시집 식구들을 비유한 새가 모두 부정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시집살이의 고통을 주는 인물들 사이의 유사성을 드러내는 열거를 확인할 수 있다.
③ [C]에서 화자가 시집살이로 변해 버린 자신의 모습을 다양한 사물에 비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물들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열거를 확인할 수 있다.
④ [D]에서 화자가 언급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은 '꽁생원'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공간에서 행해지는 이질적인 행위들 사이의 유사성을 드러내는 열거를 확인할 수 있다.
⑤ [E]에서 화자가 언급한 인물들에 대한 '꾕생원'의 행위들은 인륜에 어긋나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상에게 행해지는 이질적인 행위들 사이의 유사성을 드러내는 열거를 확인할 수 있다.

[수특 75p, 해설 21p]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만첩산중(萬疊山中) 늙은 범 살진 암캐를 물어다 놓고에— 어르고 노닌다
광풍(狂風)의 낙엽처럼 벽허(碧虛)* 둥둥 떠나간다
일락서산(日落西山) 해는 뚝 떨어져 월출동령(月出東嶺)에 달이 솟네
만리장천(萬里長天)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복희씨(伏羲氏) 맺은 그물을 두루쳐 메고서 나간다
망탕산으로 나간다 우이여— 어허어 어이고 **저 제비 네 어디로 달아나노**
백운(白雲)을 박차며 흑운(黑雲)을 무릅쓰고 반공중(半空中)에 높이 떠
우이여— 어허어 어이고 달아를 나느냐
내 집으로 훨훨 다 오너라
양류상(楊柳上)에 앉은 꾀꼬리 제비만 여겨 후린다
아하 이에이 에헤이 에헤야 네 어디로 행하느냐
공산야월(空山夜月) 달 밝은데 **슬픈 소래 두견성(杜鵑聲)**
슬픈 소래 두견제(杜鵑啼) 월도천심(月到天心) 야삼경(夜三更)에
그 어느 **낭군이** 날 **찾아오**리
울림비조(鬱林飛鳥)* **뭇 새**들은 **농춘화답(弄春和答)*에 짝을 지어**
쌍거쌍래(雙去雙來) 날아든다
말 잘하는 앵무새 춤 잘 추는 학 두루미
문채(紋彩) 좋은 공작 공기 적다 공기 뚜루루루루룩
숙궁 접동 스르라니 호반새 날아든다
기러기 훨훨 방울새 떨렁 다 날아들고
제비만 다 어디로 **달아나**노

[A]

– 작자 미상, 「제비가」 –

* 벽허 : 푸른 하늘.
* 울림비조 : 울창한 숲에서 나는 새.
* 농춘화답 : 봄을 희롱하며 서로 지저귀는.

[24001-0056]

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동일한 시구를 반복해서 제시하여 대상을 향한 주체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② 서로 유사한 의미를 가진, 한자어와 순우리말을 함께 사용하여 의미를 중첩시키고 있다.
③ 현재 시제의, 의문형과 평서형 종결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④ 색채 어휘를 사용하여 명암의 대비를 이룸으로써 그와 관련된 소재의 역동성을 부각하고 있다.
⑤ 사설의 내용과 의미상 연결되는 여음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의 자족감과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24001-0057]

2. <보기>를 참고하여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잡가의 특징 중의 하나는 다른 작품들과의 교섭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점인데, 「제비가」의 경우 「새타령」과 사설을 공유한다. 다음은 「새타령」의 일부분이다.

새가 날아든다 왼갖 잡새가 날아든다
새 중에는 봉황새 만수문전(萬壽門前)에 풍년새
산고곡심무인처(山高谷深無人處)* 울림비조 뭇 새들이
농춘화답에 짝을 지어 쌍거쌍래 날아든다

[B]

말 잘하는 앵무새 춤 잘 추는 학 두루미
소탱이 쑤꾹 앵매기 뚜리루 대천에 비우(飛羽) 소루기
남풍 좇아 떨쳐나니 구만리장천(長天) 대붕
문왕(文王)이 나 계시사 기산조양(岐山朝陽)의 봉황새
무한기우 깊은 밤 울고 남은 공작이

* 산고곡심무인처 : 산이 높고 골이 깊고 사람 없는 곳.

① [A]에는, [B]에 나타난 새들을 그대로 둔 채 일부 새들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② [B]에 사용된 시구를 [A]에 그대로 차용하여 가사로 삼은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A]와 [B]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새의 소리와 함께 동작을 다채롭게 표현하고 있다.
④ [A]와 [B]에 모두 나타나는 새의 경우 같은 종류의 새일지라도 그 특징을 [A]와 [B]에서 다르게 묘사하기도 하였다.
⑤ [A]와 [B] 모두 특정 새의 특징과 관련된 설명에 덧붙여 그 새의 종류를 제시하는 구성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24001-0058]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제비가」는 여러 노래들의 가사 중 일부분이 함께 모여, 또 하나의 노래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 노래는 가사의 내용이 긴밀히 얽혀 있지 않아, 구절들이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기까지 한다는 점에서 '비유기성'을 큰 특징으로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랫말의 계열화를 통해 정서나 이미지상의 공통점과 유사점을 추출하고 노랫말의 연원에 따른 맥락을 추론하면, 비록 욕망의 주체는 다르지만 '욕망의 추구'와 그 '욕망의 좌절'을 그린다는 공통점 때문에 하나의 노래로 합성을 이루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① '만첩산중 늙은 범'과 '양류상에 앉은 꾀꼬리'는 욕망을 추구하는 주체라는 공통점으로 합성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군.

② '만리장천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와 '슬픈 소래 두견성'은 처량함의 정서를 환기한다는 유사점을 통해 욕망이 좌절된 이미지를 그린 것으로 볼 수 있군.

③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는 주체가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을, '제비 네 어디로 달아나노'는 주체가 욕망의 좌절을 느끼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군.

④ '낭군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나는 '농춘화답에 짝을 지어' 날아든 '뭇 새들'과 대비를 이룸으로써 고독의 정서를 환기하며, 짝을 욕망하는 주체로 볼 수 있군.

⑤ '기러기 훨훨 방울새 떨렁 다 날아들고'는 '제비만' '달아나'는 상황과 대조되어 원하는 것은 오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들만 찾아와 욕망이 좌절되는 상황을 나타낸 목소리로 볼 수 있군.

[수특 78p, 해설 23p]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예 노던 길가에 초가집 짓고서
날마다 큰 강물을 바라만 본단다.
㉠ 거울에 새긴 난새*는 혼자서 늙어 가고
꽃동산의 나비도 가을 신세란다.
쓸쓸한 모래밭에 기러기 내리고
저녁 비에 조각배 홀로 돌아오는데,
하룻밤에 비단 창문 닫긴 내 신세니
㉡ 어찌 **옛적 놀이**를 생각이나 하랴.

- 허난설헌, 「기녀반(寄女伴)*」 -

* 난새: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새. 모양은 닭과 비슷하나 깃은 붉은빛에 다섯 가지 색채가 섞여 있으며, 소리는 오음(五音)과 같다고 함.
* 기녀반: 처녀 적 친구들에게 부침.

(나)

앞 못에 든 고기들아 네 와 든다 뉘 너를 몰아다가 엿커를 잡히여 든다
북해 청소(北海淸沼)* 어디 두고 이 못에 와 든다
㉢ 들고도 못 나는 정(情)이야 네오 내오 다르랴

- 작자 미상 -

* 북해 청소: 북해의 맑은 연못.

(다)

불같이도 더운 날에 **뫼같이도 험한 밭**을
한 골 매고 두 골 매고 삼세 골로 매고 나니
㉣ 땅이라 내려다보니 먹물로 품은 듯하고
하늘이라 쳐다보니 별이 총총 나왔구나
행주치마 떨쳐입고 집이라고 돌아오니
시어머니 하신 말씀
아가 아가 며늘아가 **무슨 일로 그렇게 늦게 했느냐**
친정어머니 죽었다고 부고 왔다

(중략)

아이고 답답 울 엄마요 **살아생전 못 본 얼굴**
뒷세상에서나 보려 했더니
하마 행상길을 가는군요
서른둘 행상꾼아 잠시 조금 멈춰 주소
우리 엄마 얼굴 **주검이나마** 한번 봅시다
아이고 아이고 울 어머니
㉤ 들은 체도 아니 하고 상두꾼 황천길로 가는구나

- 작자 미상, 「밭매는 소리」 -

[24001-0059]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다)는 화자의 정서와 대조를 이루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여 애상적 분위기를 극대화하고 있다.
② (나)와 (다)는 화자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자연물을 활용하여 동병상련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가)는 (다)와 달리 화자가 머문 공간적 배경을 색채 대비를 활용하여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나)는 (다)와 달리 화자와 대화를 주고받은 상대의 말을 인용하여 장면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⑤ (다)는 (가)와 달리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며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화자의 처지가 부각되고 있다.

[24001-0060]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난새에 빗대어 늙어 가는 처지를 제시하고 있다.
② ㉡: 과거와 달라진 현재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③ ㉢: 화자와 유사한 처지에 놓인 대상과 비교하여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탄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 땅과 하늘의 이미지를 대조하여 노동이 시작되는 시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⑤ ㉤: 대상의 행동을 언급하며 어머니의 주검을 떠나보내는 자식의 서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24001-0061]

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 (나)는 작자 미상의 시조입니다. 전하는 기록으로는 조선 시대 궁녀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궁녀는 궁궐 안에서 왕과 왕비를 가까이 모시는 내명부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궁녀의 생활은 엄격한 법과 규칙으로 통제되었는데, 환관 이외의 남자들과 절대로 접촉하지 못하고 평생을 수절해야만 했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채 궁 안에서 살아야만 했던 궁녀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의 작가를 궁녀라고 생각하고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① 앞 못에 든 고기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궁 안에서 갇힌 생활을 하는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겠군.

② 고기들을 앞 못에 몰아다 넣은 대상을 궁금해하는 것은 신분 제도로 인해 궁녀에게 엄격하게 적용될 법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것이겠군.

③ 앞 못에 든 고기들이 북해 청소를 떠나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궁녀의 삶을 억압하는 사회 규범에 대한 분노와 관련 있는 것이겠군.

④ 들어오고도 못 나가는 심정은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하고자 한 자신의 노력을 한심하게 여기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⑤ 못에 갇힌 고기들이 자신의 처지와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궁녀의 바깥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했던 당시의 제도로 인한 고충을 드러낸 것이겠군.

[24001-0062]

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조선 시대는 '내외법'이 철저하게 지켜졌다. '내외'의 의미는 단순한 남녀유별(男女有別)이었지만, 실제로는 남녀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았고, 주로 여성들의 삶을 규제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였다. 가령, 여성들은 가능한 한 문밖출입을 자제해야 했고, 결혼을 하면 친구들과의 놀이는 물론이고 친정 나들이까지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기가 되었다. 또한 가난한 서민 여성의 경우는 남녀의 역할 분담에서 가사뿐만 아니라 생계유지까지 이중적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 (가)와 (다)는 이러한 제약이 많았던 사회에서 결혼한 여성 화자가 등장한다. (가)는 방 안의 공간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여성의 목소리를, (다)는 밭에서 노동을 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담은 작품이다.

① (가)에서 '옛적 놀이'를 생각하는 것은 결혼하기 전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것이군.

② (가)에서 '꽃동산의 나비'를 가을이 되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방 안의 공간에서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을 반영한 것이겠군.

③ (다)에서 '불같이도 더운 날'에 행주치마 떨쳐입은 채 '뫼같이도 험한 밭'을 매는 것은 가사뿐만 아니라 생계유지를 위한 농사일까지 감당하는 여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군.

④ (다)에서 '친정어머니 죽었다고 부고'를 받은 후에 '살아생전 못 본 얼굴'을 '주검이나마' 보겠다고 하는 것을 통해 결혼을 한 후에 친정어머니를 자유롭게 만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⑤ (다)에서 시어머니가 '무슨 일로 그렇게 늦게 했느냐'고 며느리를 다그치는 것은 내외법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규제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었던 상황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군.